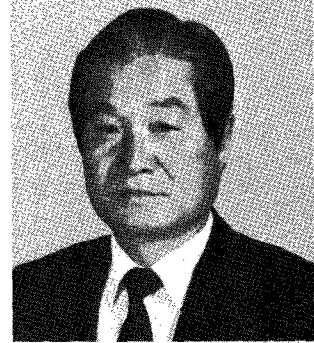


原子力에 대한 國民의 理解와 納得이 必要하다



曹喜澈

〈國會議員·動力資源委員〉

원자력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, 관계하시는 학자님들을 비롯한 정부, 한국전력, 산업계 여러분들이 계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기회를 빌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

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, 지금 우리는 민주화 시대, 여론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제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을 세우고 최상의 상태로 추진해 나간다 하여도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, 그것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예상됩니다.

예를 들면, 원자력발전이 왜 필요한가? 원자력의 기술자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? 기술자립을 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고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? 지금까지 추진해온 성과는 무엇인가? 등등 원자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.

'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원자력발전사업이 어느덧 20여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. 이제는 원자력에 의한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50%를 상회하고 세계 10위권 원자력발전국가로

크게 성장하여 왔습니다.

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오늘 이 세미나는 국회, 정부, 학계, 한국전력, 산업계의 많은 인사들을 모시고 공개적인 원자력기술자립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민주화시대에 걸맞은 뜻깊고 훌륭한 행사라 생각합니다.

오늘 이 행사가 정부, 한국전력은 물론이고 우리 국회에서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.

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의 이해상관을 떠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알차고 허심탄회한 발표와 토론을 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국회 동자위원회에서도 아낌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는 바입니다.

오늘 이 훌륭한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동력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.

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